아토피성 피부염의 침치료에 대한 문헌적 연구

심성윤

상지대학교 한의과대학 경혈학교실, 원주

Abstract

목적: 본 연구는 아토피성 피부염 환자의 치료에 유용한 침 처방을 수집하여 제시하고 그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기 위하여 시행되었다.

재료 및 방법: 아토피성 피부염이 한의학적으로 어떤 범주에 정확히 속해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없기 때문에 소양증과 특정 부위의 홍반, 부종, 가피, 찰상, 태선화 등을 주된 증상으로 하는 피부염에 대한 침처방을 수종의 한의학 서적과 임상실례에서 수집하여 그 중 출현 빈도와 타당성이 높은 것을 선별해 각 혈의 특성과 주치를 바탕으로 선혈 이유와 적응증에 대하여 고찰하고 아토피성 피부염의 변증분류에 따른 치법별로 정리하였다.

결과: 곡지, 견우, 풍지, 풍문, 백회, 천주, 신주, 합곡, 양지, 대추, 신문, 심수, 격관, 간사, 소해, 통리, 비수, 천추, 중완, 족삼리, 삼음교, 혈해, 격수 등이 사용되며 사암침법의 대장정격과 소장정격을 쓰기도 하며 동씨기혈의 사마혈, 삼중혈, 삼선혈, 영골혈 등도 이용된다.

결론: 아토피성 피부염의 치료는 청풍열해독, 통심경지화, 리습, 량혈의 치법으로 치료하고 환자에 따라 건비보혈의 치법을 더불어 사용한다. 풍열해독을 위해서는 곡지, 견우, 풍지, 풍문, 백회, 천주, 신주, 간수, 합곡, 양지, 대추 등을 쓰고 통심경지화 신문, 신주, 심수, 격관, 간사, 소해, 통리 등을 쓰며 리습을 위해서는 곡지, 견우, 비수, 신수, 천추, 중완, 족삼리, 삼음교 등을 쓰며 량혈을 위해서는 곡지, 신주, 격수, 삼음교, 혈해 등을 쓴다. 건비보혈이 필요한 환자의 경우는 비수, 삼음교, 혈해, 격수, 족삼리, 중완 등을 사용한다.

팔체질침의 경우는 금양체질로 판단하고 자침하며 사암침법에서는 주로 대장정격을 사용하고 소양증이 심한경우는 소장정격을 사용하고 동씨침법에서는 사마혈, 삼중혈, 삼선혈, 영골혈 등도 이용된다.

또한 임상에서는 환부에 그 경계를 따라 많은 수의 침을 동시에 다자하는 방법도 사용된다.